

제사 의례로 추모되는 제주 여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 김만덕, 고씨, 박씨, 홍윤애를 중심으로 -

문 순 덕*

- I. 서론
- II. 김만덕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 III. 고씨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 IV. 박씨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 V. 홍윤애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 VI. 결론

국문초록

제사 의례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제사에는 국가 제사와 조상 제사가 있는데 지방, 마을, 문중 단위로 치러지는 제사 의례는 남성이 추모 의례 대상자로 부각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지방, 마을, 문중의 핵심 추모 의례 대상자로 정립된 여성들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추모 의례 대상자인 ‘김만덕, 고씨, 박씨, 홍윤애’ 등 4명의 행적과 추모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만덕의 추모 의례는 제주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제사 의례에 해당된다. 고씨의 추모 의례는 특정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 제사이고, 박씨는 특정 종친회가 의례 주관자이므로 문중 의례에 속한다. 홍윤애의 추모 의례는 지역 예술인들이 의례 주관자이므로 특정집단의 공동체 의례라 할 수 있다.

추모 의례의 주인공인 4명의 여성들이 조선시대 인물이면서도 현대에 와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msdeok@hanmail.net)

서 추모 대상이 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의 행적을 기리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추모 의례는 제사 절차를 통해 가문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지역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제사 의례 자체는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선조들의 행적을 기억하고 공유함으로써 혈연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부여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여성 대상의 추모 의례를 집행함으로써 그 여성의 행적을 귀감으로 삼기를 바라는 집단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주제어 : 추모 의례, 김만덕, 고씨, 박씨, 홍윤애, 종친회, 절부암

I.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추모 의례로 고착화된 제사 의례는 조선시대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유교식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다만 종교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제사 의례 봉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식 제사는 묘제, 기제(기제사), 차례(설, 추석) 등을 가리킨다. 『주자가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유교식 제사 의례는 국가 제사, 마을 제사, 문중 제사 등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유교식 제사 의례는 근대 이후 종교(기독교)의 영향으로 의례 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산업사회 이후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예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당성도 명분을 잃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식 제사 의례는 지역과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유교식 제사 의례의 유지 목적과 이행 절차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유교문화의 전통성과 부계혈족의 의례 행위에 관점을 두고 있다. 김광역(1999)에서는 안동지방의 상례와 제례 절차를 통해 문화적 실현에 대한 민족지적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 김미영(2009a)에서는 제례

는 조상과 자손들의 소통의 장 역할이 크다고 보았으며,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의 세계관은 죽음의 세계보다는 현재적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영(2009b)에서는 조상숭배에 역점을 둔 제사 의례의 집단적 가치 규범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옥(2011)에서는 조상제사에 대한 후손들의 태도와 조상에 대한 기억 등 제사 의례의 기능을 다루었다.

유교식 제사 의례의 의미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주자가례』의 도입과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는 이유 등을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사 의례의 유지 목적, 혈연공동체의 가치관 정립 등 부계혈족 중심으로 봉행되는 의례 이행의 의미를 다루었다. 한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지방, 마을, 문중 단위로 행해지는 제사 의례를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마을, 문중 단위로 치러지는 유교식 제사 의례는 남성이 추모 의례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이는 제주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에는 지방, 마을, 문중, 특정 공동체 중심으로 봉행되는 제사 의례가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봉행하는 한라산신제¹⁾와 씨족집단을 대표하는 삼성사 대제(三姓祠 大祭)²⁾가 있다.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제(포제)³⁾가 있고, 무속의례로 알려진

1) 한라산신제는 한라산신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사 의례이다. 이 의례는 조선 태종 18년(1418) 4월 11일부터 지내다가 1908년 일본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1966년부터 2008년까지 산천단마을에서(제주시 아라동 소재) 봉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주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지원 조례」가 제정(2012.12.31.)되면서 제주도 차원의 제사 의례로 봉행되고 있다.

현재 이 의례는 봉행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산천단에 제단이 있어서 아라동 사람들이 의례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019년 한라산신제는 3월 24일에 봉행됨).

2) 삼성사 대제(三姓祠 大祭)는 삼을라(三乙那)의 위패가 봉안된 섬성전에서 매년 봄(4월 10일)과 가을(10월 10일)에 삼성(고양부)의 후손들이 합동으로 지내는 제사 의례이다. 이 의례는 1699년부터 봉행되었다.

3) 마을제(포제)는 마을단위로 치러지는 유교식 제사 의례이다. 제주도의 마을들은 음력 정월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 중 마을 사람들의 협의를 거쳐 제일을 정한다. 이 의례는 마을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마을 공동체의 결

당곳(본향당곳)⁴⁾과 해녀공동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잠수곳⁵⁾이 있다.

이와 같은 제사 의례와 달리 지방, 마을, 종친회의 추모 대상인 ‘김만덕, 고씨, 박씨, 홍운애’ 등 4명의 여성이 있다. 김만덕은 조선 후기 제주 사람들이 기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전 재산을 기부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주도에서 매년 추모제를 지내는 주인공이다. 마을 사람들의 추모 대상인 고씨 부부는 부부애의 전형을 보여 주며, 마을의 제사 의례를 통해 기억되고 있다. 박씨 부녀는 종친회에서 추모하는 대상으로 제사 의례를 통해 그 행적이 기억되고 있다. 3명의 여성들과 좀 다른 유형으로 홍운애가 있다. 이 여성은 연인(조정철)의 무고함을 주장한 죄로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이 여성 또한 종친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추모 의례를 통해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근대시기 역사에 기록된 여성들은 열녀와 효부들이 많은 편이고, 근대로 넘어오면 항일운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비해 평범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치적을 칭송하는 추모 의례는 적은 편이다. 더욱이 평범한 여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업적 또한 증명과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논거 이용이 편리한 전근대 또는 근대시기에 활동한 여성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현대인들의 귀감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에서 논의할 4명의 여성 관련 추모 동기와 의미는 제주 사회 구성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속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마을제는 제주 사회의 역사적 변동을 겪으면서 폐지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마을 구성원들의 정체성 강화와 유교식 전통을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거의 모든 마을에서 봉행되고 있다.

- 4) 당곳은 전통적인 민간신앙으로 매년 정해진 제일에 따라 무당의 주관 하에 당 곶들이 참석하여 가족과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무속 의례이다.
- 5) 잠수곳은 김녕잠수곳(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속 해녀 중심의 곳의례임)이 유명하다. 최근 들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녀곳’이 행해지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2016.12.)된 이후 해녀곳을 장려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35개 어촌계에서 해녀곳이 치러졌다. 해녀곳은 해녀와 관련이 있는 곳의례를 통칭하는 의미이며, 제주도에서는 행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4명의 여성들은 조선시대 인물로 그들의 행적이 후대에 귀감되어 추모되고 있다. 특정 인물을 추모한다는 것은 그의 업적과 정신 등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정형화하여 반드시 계승하기를 바라는 집단의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김만덕은 제사 의례와 추모 축제의 방식으로 봉행되고 있다. 고씨와 박씨의 추모는 제사 의례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추모 축제로 확장되려면 종친회와 마을 사람들의 변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편 제주도 예술인들은 홍윤애라는 여성의 절행을 의미 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추모 예술제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4명의 여성들이 종친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제 주인공으로 선택된 동기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추모 동기와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자료와 제사 의례 관계자들의 면담내용을 참조하였다.⁶⁾

II. 김만덕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1. 김만덕의 추모 동기

김만덕은 제주도가 의례 주최자로 참여하는 추모 대상자이며, 1980

6) 문헌자료는 본론에서 제시하였고, 면담한 시기는 추모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만덕제'에 참여하면서 김만덕 후손과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을 만나서 김만덕 추모 의례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절부암 주인공인 고씨의 추모 의례와 관련해서는 용수리 사람들을 면담하고, 추모제에 참석하여 확인하였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추모제에 참석하였다.

박씨 추모 의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사이 5회 정도 종친회원을 만나서 의례 절차와 방법 등을 확인하였다.

홍윤애 추모 의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시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양주 조씨 종친회 회장(조원환)을 인터뷰하였고, 2013년에는 함녕재 사당(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을 방문하였다.

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유교식 제사 의례로 추모되고 있다. 김만덕이 추모 대상으로 선택된 동기를 살펴보겠다.

제주 출신 김만덕(1739~1812)은 제주 여성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김만덕의 행적이 시대를 초월하여 귀감됨은 조선시대 제주 사회의 현실에 근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에 들어와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 정신을 격조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당대 제주 사회의 경제적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1794년(정조 18)~1795년(정조 19) 2년간 극심한 흉년으로 제주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때 김만덕은 상업활동을 통해 비축해 두었던 자신의 전 재산을 조건 없이 기부하였고, 그 돈으로 쌀을 구입하여 배급함으로써 제주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만덕은 역사 속의 인물로 여러 문집⁷⁾에 기록되어 있으나 김만덕의 업적이 제주 사회에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와서이다. 제주도에서는 김만덕묘를 모충사(제주시 건입동 소재)로 이묘⁸⁾한 이후 1978년에 만덕관을 건립하였다. 1980년에 ‘김만덕상’을 제정하고, ‘만덕제’⁹⁾를 지내고 있다. 이로써 만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추모

7) 김만덕의 행적은 전기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채제공의 「만덕전」에 기초하여 여러 종의 「만덕전」이 창작되었다. 김만덕의 생애사 관련 기록이 빈약한 관계로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현대 한국인들은 「만덕전」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여 김만덕의 신분과 상업활동 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만덕의 행적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김만덕 자료총서 II』(김만덕기념사업회, 2008)가 있다.

8) 김만덕묘지 일대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1977년 모충사(제주시 사라봉 소재)로 이묘하게 되었다. 이후 김만덕 추모 장소가 새롭게 조성되고, 만덕관을 건립하면서 김만덕이 제주도의 추모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9) 제주시에서는 김만덕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만덕상」을 제정하여 1980년부터 매년 「탐라문화제」(2001년까지는 「한라문화제」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됨) 때 시상하였다. 모충사는 제주시가 관리 주체이므로 「만덕제」를 주관했으며, 「김만덕상」은 제주도가 주관했다.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재편된 이후부터는 모든 행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7년 10월 만덕주간이 정해지면서 이 추모 의례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위탁받아 운영

의례로 자리매김되었다.

김만덕 추모제의 한 방식으로 ‘김만덕상’을 시상하고 있다. 제주도에 서는 김만덕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김만덕상’을 제정하여 1980년 부터 매년 1명씩 시상해 오고 있다. 김만덕상은 제주 여성들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출발하였으나, 국내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06년 부터는 경제인상 부분을 신설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였다.¹⁰⁾

다음은 만덕제일 지정 과정을 살펴보겠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는 탐라문화제 개막일¹¹⁾ 오전 10시에 만덕제를 봉행했다. 그 결과 김만덕 기념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만덕제일을 의미 있게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¹²⁾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017년에 10월 22일이 포함된 10월 넷째 주를 ‘만덕주간’으로 정하고 만덕제와 김만덕상 시상식을 포함하여 일주일 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만덕축제로 확대하였다.¹³⁾

만덕제는 유교식 제사 의례로 봉행되는데, 여성들을 의례 주관자로 선출하여 제사 의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의례 경비는 제주도가 지원

하고 있다.

- 10)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김만덕상 수상자는 49명(봉사부문 40명, 경제인부문 9명)이며, 2019년은 김만덕상 제정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0년 당시 만덕봉사상으로 출발하여 2006년부터 김만덕상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11) 탐라문화제 개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만덕제일 또한 매년 봉행일이 달라졌다.
- 12)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시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에 제주시가 주관하여 진행하던 만덕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다. 또한 김만덕을 기리는 행사가 다른 축제에 묻혀버려서 그 존재 의미가 축소되면서 독자적인 기념일 제정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문순덕·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2010) 참조.
- 13) 김만덕 사망일이 1812년 음력 10월 22일이므로,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25일이 되는데 추모제 개최 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22일이 포함된 넷째 주를 김만덕주간으로 정하였다. 이에 2017년 김만덕 추모 205주기를 맞이하여 10월 22일을 전후하여 김만덕주간으로 선포되었다. 2017년 제38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은 10월 22일 개최되었는데, 이는 김만덕 추모제 일정이 처음으로 확정된 해이다. 2019년 제40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은 10월 20일(일요일) 10시에 개최되었다.

한다.

김만덕은 제주도가 주관하는 추모 의례 대상자이며, 제사 의례인 '만덕제'와 그 업적을 기념하는 '김만덕상' 등 2종류로 거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모 의례는 김만덕의 행적을 기억하는 한편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행동거지를 규정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만덕의 행적을 기념하는 방식에는 유교식 제사 의례와 축제가 있다. 즉 만덕제는 유교식 제사 의례로 봉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나눔의 잔치라는 축제 형식을 가미하여 추모 의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 김만덕 추모 의례의 의미

만덕제는 김만덕묘지에서 오전 10시에 봉행되며, 이 의례가 끝나면 김만덕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만덕축제가 진행된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실존 인물로 그의 행적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더욱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가 의례 주최자가 되고, 제주 사람들이 의례 참여자가 되면서 김만덕의 당대 행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제주 사람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김만덕은 지방정부의 추모 의례 대상자로 자리매김되었고, 그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김만덕상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김만덕상 지원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만덕이 제주도의 추모 의례 대상자였기에 제주도 차원의 기념행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김만덕의 생애와 활약상이 사료와 전기문을 통해 알려지고, 구체적인 현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김만덕기념관(제주 시 건입동 소재, 2015년 5월 29일 개관)은 김만덕 정신을 확산할 수 있

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립되고 있다.

김만덕은 드라마, 뮤지컬, 소설, 만화 등 여러 장르의 콘텐츠로 활용됨으로써 김만덕이라는 인물에 한정하기보다는 김만덕 정신을 표상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김만덕의 위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도로명에도 반영하였다. 새주소 시행 정책에 따라 도로명을 지정할 때 김만덕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상지를 ‘만덕로’라고 명명하였다.¹⁴⁾

제주도에서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김만덕을 추모하는 의례를 집행하면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풀 정신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세대와 직업에 따라 김만덕의 인지도에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김만덕 이야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김만덕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그의 행적을 알리기 위하여 만덕상 수상자 선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김만덕 추모제 유지와는 별개로 김만덕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도의 정치 환경과 상업활동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김만덕의 행적을 자세히 알기에는 사료가 부족한 편이며, 전기문과 정조실록, 개인문집 등을 통해 일부 알려져 있는 정도이다. 김만덕은 제주 출신(거주지), 기녀 출신(신분), 재산 기부(사회봉사), 금강산 유람(조선시대 출륙금지령 시행 시기), 임금 알현 등 여성과 낮은 신분을 부각하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김만덕의 업적 뒤에 숨어있는 심노승의 부정적 평가¹⁵⁾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 즉 심노승 평가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김만덕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정립할

14) 제주시 건입동 지역에 해당되는 ‘만덕로’는 동문로타리에서 제주동초등학교 사이를 가리킨다. 제주도에는 만덕로 이외에도 금백조로, 천덕로, 홍랑로 등 여성 인물과 관련 있는 지역에 그들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지정하였다.

15) 심노승(1762~1837)은 「계섭전」에서 김만덕의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하여 돈을 버는데 남자들의 바지저고리를 벗길 정도로 억세다고 평가하였다(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Ⅱ』, 2008, 58-59쪽).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김만덕의 행적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칭송할 경우 이상화에 빠질 수 있다.

김만덕은 실존 인물이고 그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일부 있으므로, 사실과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만덕 관련 전기문의 내용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의 관점에서 추모 의례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성과 거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김만덕의 위대성만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만덕의 추모 의례는 지방정부의 의례이므로 인물의 행적을 부각하는데 역점을 둘 수 있지만 추모 의례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숭배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김만덕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단계에만 머문다면 제주도의 추모 의례 주인공으로만 남을 것이고, 의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김만덕의 행적과 추모 의미에 대한 논의가 냉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김만덕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해 보려는 비판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Ⅲ. 고씨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1. 고씨의 추모 동기

고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추모 대상자이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節婦岩은 고씨 부부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에 따른 상징물이다. 고씨 부부의 행적은 사료와 전설로 전해오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제사 의례를 통해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씨의 행적과 추모 의례 대상자로 선택된 동기, 추모제 이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문헌에 기록된 고씨 부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남편 이름은

강사철이고, 아내는 고씨이다. 고씨는 어부인 남편이 실종된 후 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고, 그 후 애절한 사연이 알려지자 그 절개를 높이 사서 1852년(고종 3) 판관 신재우가 절부암이라 명명했다.

문헌¹⁶⁾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철의 처 高氏는 시가가 고산리이다.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고씨는 며칠을 울면서 해변을 돌아다니다가 옷매무새를 갖추어 바닷가 바위 나무에 목매에 죽었는데 남편의 시체가 바위 나무 아래 떠올랐다. 이에 사람들이 曹娥의 抱屍에 견주어 감탄했다. 고종 3년(1852)에 판관 愼裁拮가 바위 이름을 節婦岩이라 하고, 마을에서 매년 제사지내도록 했다.]

다음은 고씨의 행적이 전설¹⁷⁾로 전승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절부암에 얽힌 사연,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죽은 고씨의 생애, 고씨의 절행과 추모제를 지내게 된 내력’ 등이 전설화되었다.

[강씨 총각과 고씨 처녀가 결혼하여 살았는데 고기잡이 갔던 남편이 풍랑을 만나 실종되었다. 아내는 혼절하고 시체를 찾아다니다가 바닷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의 시체가 떠올라서 동네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하고 부부를 당산봉에 합묘했다. 그 당시 신재우의 꿈에 고씨가 나타나서 과거시험을 보라 일러주니 급제했다. 그 보답으로 신재우는 고산리와 용수리에 엽전 서른 냇을 나눠주고 매년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바위를 절부암이라 명명했다.]

16) 고씨 부부의 애절한 사연은 『속수삼강록』, 『역주 탐라기년』(김석익 편저, 흥기표 외 역주, 제주문화원, 2015), 『역주 증보탐라지』(홍순만 외 역, 제주문화원, 2006), 『제주충효열지』(제주도, 1984) 등에 수록되어 있다.

17) 전설로 전해오는 ‘절부암은 제주도에서 채록된 자료집(1975~2017)에 실려 있으며, 그 화소는 대동소이하다. 주로 『제주설화집성(1)』(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국문학보』15(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제주문화원형-설화편1/2』(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7/2018) 등에 실려 있다. 본문에 인용한 고씨 부부 관련 전설은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문순덕, 도서출판 각, 2007)을 참조하였다.

절부암은 고씨의 절개를 후세에 기리기 위한 곳으로 1971년 8월 26일 지방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문헌과 전설을 통해 고씨의 추모 의례 동기를 알 수 있는데, 절부암 추모제¹⁸⁾는 185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음) 3월 15일에 마을 제사로 봉행되고 있다.

절부암 추모제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⁹⁾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3헌관을 경험자로 선정한다. 제관은 청년회장, 이장, 개발위원장 등이 맡는다. 절부암제는 처음부터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봉행한 제사 의례이므로, 마을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가 의례를 주관하고, 부녀회에서는 제물 준비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추모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추모제는 마을회에서 매년 경비를 책정하고, 제주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지원²⁰⁾하고 있다.

절부암 추모제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용수리 부녀회에서는 제사 음식을 마련한 후에 추모제를 지내는 날 산소에 가져갈 제물과 개당²¹⁾에 가져갈 제물을 각각 채롱에 보관해 둔다. 추모제일 오전 8시 경 청년회장과 이장은 전날 준비해 둔 제물을 들고 고씨 부부의 산소²²⁾에 가서 제를 지낸다. 그런 다음 오전 9시 경 절부암 제단으로 가서 제상을 차리고, 오전 10시에 추모제를 지낸다. 제단에서 추모제를 지낸 후에 제관들은 제물을 거두어서 마을회관으로 돌아간다.

18) 절부암 추모제는 절부암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고씨 부부를 위한 제사 명칭이다. 제일은 음력 3월 15일이다. 1990년 경 절부암 제단이 조성되었다.

19) 절부암 추모제 절차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추모제에 참석하였고, 추모제 집행 관계자에게 추모제 경비, 의례 담당자의 역할 등 의례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20) 절부암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21) 1990년대 후반 용수리 해녀가 바다에서 사고로 죽자 굿을 했다. 이때 개당에 가서 제를 지내야 한다는 무당의 말이 있어서 이후부터 어부(선주와 선원들)들은 추모제일 오전 8시에 최소한의 제물을 채롱에 담고 개당에 가서 제를 지낸다.

22) 마을 사람들은 고씨 부부 합장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묘지는 고산리 당산봉에 있다. 비문은 훼손되어서 글자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산담을 정비하여 추모제를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한 도로변에서 묘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지나다닐 때 다른 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마을에서는 고씨 부부의 묘지를 정비하고, 진입로를 단장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고 싶어 한다.

마을 사람들과 참배객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지역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마을회관이 또 다른 추모 의례 공간으로 활용된다.

2. 고씨 추모 의례의 의미

역사와 전설의 주인공인 고씨의 추모 의례는 용수리(제주시 한경면 소재)와 고산리(제주시 한경면 소재) 사람들이 공동으로 묘지에서 지내 왔다. 고씨의 추모 동기에서 살펴보았듯이 1852년 이후 유교식 제사 의례가 봉행되었으며, 제사 비용은 고산리와 용수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제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 되었고, 祭田²³⁾의 수입도 줄어들어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 고산리 사람들은 용수리 사람들이 고씨 추모제를 주도적으로 봉행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용수리 사람들은 고씨 부부가 용수리에서 살다가 사망하였고, 그를 기념하는 절부암이 있기 때문에 절부암제 봉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용수리 사람들이 고씨의 추모제를 담당하고 있다.

용수리 사람들이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금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복 후에 * * *이장이 추모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리 부녀회에 기부금을 요청했다. 해녀들은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냈고, 그 돈을 모아서 1,050m²(318평) 면적의 밭을 구입했다. 1947년 9월 29일에 작성된 기부자와 기부금 명부가 용수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23) 고씨 추모제를 위한 제전을 마련한 후 처음에는 부녀회원들이 마늘농사를 수확하여 추모제 경비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농작물 수입이 없어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경작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 밭은 진입로가 없고(이런 밭을 명지라고 함) 경작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2016년에 매매해 버렸다. 그런데 이 밭은 용수리 해녀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구입하였기 때문에, 매매한 이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그에 맞먹는 토지(밭) 구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수리에서는 1986년 3월 15일 節婦祭基金義捐芳名錄(절부제 기금 의연 방명록)을 만들어서 기부금 내역을 작성해 두었다. 기부자는 ○○의 처, ○○ 등 마을 사람들이 각자 십원, 이십원, 삼십원, 오십원, 일백원, 이백원, 5백원까지 기부했다. ‘절부제 기금 의연 방명록’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²⁴⁾

[위 회사금을 모아 절부제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하여 용수리 지번 4517번지의 밭 318평을 사들여서 이장이 관리하기로 하고, 토지의 수익금으로 제사봉행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이장이 사임한 때에는 밭에 부친 곡식만을 수확한 후 신임 이장에게 인계한다. 서기 1947년 9월 29일 용수리민 일동]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祭田은 마을의 자산이다. 그 당시 마을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해녀들이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낼 수 있었다. 지금은 마을에서 추모제 경비를 부담하고, 의례 집행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절부암제는 제사라는 의례 절차를 행한 후에는 마을잔치로 이어진다. 절부암 제단에서는 고씨 부부와 마을의 안녕을 비념하는 제사를 봉행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마을회관이 또 하나의 축제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절부암제는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 추모제로 변형되면서 역사적 의미는 물론 지역민의 정체성 확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부암제의 주인공인 고씨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고, 유교식 제사 의례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결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추모 의례가 지속가능한 것은 그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 그 절행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제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부암의 유래와 고씨의 절행은 열녀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한편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유교식 제사 의례가 지속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추모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씨의 추모 의례는 마

24) 기부금 명부는 용수리사무소의 협조로 열람하였고(2012.11.), 그 내용은 백종진(역사학자)이 번역하였다.

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인과 자긍심 확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을단위 추모 의례는 중장년층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공감하는 문화이고, 이 세대들은 선조들을 위한 추모 정신이 젊은 세대로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이에 고씨의 추모 의례는 마을 잔치로 변형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고씨의 절행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그 행위를 추모하는 것에 치중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로지 조상 숭배의 의미만 강조할 경우 고씨와 같이 여성(아내)의 희생만을 부각하게 된다.²⁵⁾

IV. 박씨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1. 박씨의 추모 동기

박씨는 부친 박계곤과 더불어 종친회의 추모 대상자이다. 신엄리(제주시 애월읍 소재)에 있는 삼정문(비지정문화재)은 박계곤과 그의 딸 박씨, 충비 고소락²⁶⁾ 등 세 사람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하여 모신 사당(정려각)이다. 삼정문 사당 내부는 효자칸, 열녀칸, 충비칸 등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엄리에 살고 있는 종친들이 사당(정려각)을 관리하고 있다.

삼정문 관련 내용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설로도 전해온다. 이들 세 사람의 행적과 추모 동기를 살펴보겠다.

25) 필자는 고씨 추모제에 참석하여 여성이 주인공인 제사에 남성이 의례주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또한 마을 여성들에게는 직접 의례를 집행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피력해 보았다. 이때 남성과 여성 모두 제사 의례이기 때문에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모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26) 열녀 박씨와 박계곤, 충비 고소락의 이야기는 『속수삼강록』, 『정조실록』, 『박씨 삼정문』(김봉옥 편저, 경신인쇄사, 1983.), 『제주충효열지』(제주도, 1984),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효열록』(고창석 역, 제주교육박물관, 1996), 『역주 증보탐라지』(홍순만 외 역, 제주문화원, 2005)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글에는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박계곤의 삶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朴繼崑은 애월읍 신엄리 사람으로 정조 18년(1794) 갑인년에 제주어사 沈樂洙가 임금께 아뢰어 정려하였으며, 이원조 목사가 전을 지었다. 말하기를 제주 사람 朴繼崑과 그 딸 및 여종 高所樂의 효·열·충은 마땅히 특이함을 旌閭하는 恩典이 있어야 함을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제주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우리 제주는 王都와는 멀어서 풍속의 教化됨이 거칠고 낮으며 사람들이 촌스럽게 되었지만, 이제 바다 북쪽에도 전례 없는 임금님의 은혜를 입은 영광은 어찌 박씨 혼자만이 갖는 것이겠느냐, 북치고 춤출 듯 感興이 일어나는구나.” 하였다.]

- 『속수삼강록, 정조실록, 효열록, 제주충효열지』

열녀 박씨 관련 사료에는 박씨가 수절하면서 시부모를 잘 섬기고 가문 유지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전설에는 박씨의 남편이 살아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사료에서 전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설에는 박씨와 충비 고소락의 효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박계곤의 딸 박씨가 열녀로 칭송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氏는 효자 朴繼崑의 딸로 남편 이향춘²⁷⁾의 삼년상을 정성으로 치르고 종신 수절했다. 향간에서는 靑孀이 수절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지만 媿家를 섬기면서 세월이 갈수록 행동에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家運이 순탄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이겨내고 70세에 세상을 떠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貞節夫人이라 칭찬하고 그 절행을 천거하니 정조 18년(1794) 沈樂洙 어사가 아뢰어 그의 부친 박계곤과 함께 정표되었다.]

- 『효열록, 박씨삼정문, 제주충효열지』

충비 고소락은 박계곤의 딸 박씨의 몸종으로 주인의 정절을 본받아서 절개를 지킨 주인공으로 추모되고 있다. 다음은 고소락의 절개 사유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27) 이향춘은 제주시 오등동 사람이므로, 박씨의 묘비는 오등동에 있다.

[忠碑 高所樂은 竹城里 朴氏夫人이 節行한다는 소문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박씨를 찾아가서는 물중(汲水婢)으로 삼아 줄 것을 간청했다.

그녀는 60여세까지 죽도록 주인을 한결같이 섬기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忠綱라 칭찬하고, 효(朴繼崑)와 열(朴氏夫人)이 있으니 충(高所樂)도 따라온 것이라고 하며 三綱이 갖추어졌다고 칭찬했다. 그녀를 고소락이라고 부른 것은 그녀의 머리가 더부룩하고 위로 말아 올린 까닭에 생긴 이름이다. 정조 18년(1794)에 沈樂洙 어사가 아뢰어 효자 박계곤 열녀 박씨와 함께 정표되었다.]

- 『정조실록, 효열록, 제주충효열지, 박씨삼정문, 역주 증보탐라지』

조선시대 열녀와 충·효의 주인공들은 주로 양반이거나 평민 신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고소락은 신분이 낮은 몸종이지만 주인의 절행을 본받고, 자진해서 열녀의 길을 걸었다. 그 점을 높이 사서 정표되었고, 오늘날 박씨 종친회에서는 충·효·열 3명을 추모하고 있다. 박씨 종친회는 사당에서 매년 추모제를 지내면서 종친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2. 박씨 추모 의례의 의미

박씨 종친회²⁸⁾에서는 오래전부터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추모제의 절차와 의미를 살펴보겠다. 추모제일의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계곤의 기일은 음력 7월 11일이지만 음력 3월 16일에 제사를 지내왔다. 사당제의 시작 연도는 분명하지 않고 조상 제사와 같이 오래전부터 행해졌다.

전통적인 농경시대에는 절기와 종친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음력 3월 16일을 추모일로 정했다. 그런데 추모제를 지내는 시기와 농사일이 겹치고, 종친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추모제일 변경 논의가 있었다.

28) 박씨 종친은 밀양 박씨 규정공과 공간공7세 후손공계를 말한다. 박씨의 추모제 절차와 의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자주 사당을 찾아갔으며, 박씨 종친회원과 5회 정도 인터뷰를 하였고, 2010년 제사 의례에 참석하였다.

추모제일의 변경은 종친회 회원들의 협의 하에 조정되었다. 박씨 종친들이 회의를 통해 가능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추석날을 제일로 변경하였다.²⁹⁾ 이때부터 삼정문 사당제는 추석날 오전 10시에 후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지내고 있다.

삼정문 사당제일을 추석날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친들이 생겨났다. 음력 3월 16일에 제사를 봉행할 때는 외지(제주시 등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추석날로 제일을 변경한 후에는 신음리에 거주하는 친척들만 참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은 본인 집안의 차례(추석)를 지내야 하므로, 사당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추석날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다음은 추모제 경비 마련 방법을 알아보겠다. 삼정문 추모제는 박계곤 직계손이 묘제를 지내듯이 의례 비용을 부담한다. 신음리에 사당이 있으므로 이곳에 사는 박씨 종친회³⁰⁾에서 돌아가면서 제사 비용을 담당한다. 제사 음식 담당자는 추석 제물을 준비하면서 추모제 음식을 마련한다. 추모제는 제사 의례이므로 제사 지내는 절차와 같다.

현재 사당제 추모 의례 참석자는 어른과 아이 합해서 약 30~40명 정도이다. 삼정문 사당제에는 박씨 종친회원들이 참석하므로 아이들도 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사가 봉행되는 동안 사당 마당에서 아이들끼리 공동체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박씨 종친회는 삼정문 추모 의례의 주최자로서 선조와 후손의 영속성 유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제사 의례 봉행 시 자손들이 모이면 박계곤의 효성과 정려각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종친회의 자부심을 심어 주면서 문중이라는 혈연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

29) 추모제일인 음력 3월 16일은 농사철이라 일손이 부족하고, 직장인들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추석날로 변경했다. 추석 때는 아이들도 추모제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사당은 건축 당시보다 면적과 높이가 조금 확장되었다.

30) 현재 8명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1회의 제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제사 의례는 부계혈연 집단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으며, 남성중심사회 유지에도 한몫을 담당했다. 이에 삼정문 제사 의례를 봉행함으로써 박씨 문중의 자긍심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2명의 열녀를 배출한 가문임을 지역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혈연공동체 중심의 추모 의례를 통해 자신과 가문의 정체성 확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추모 의례는 유지할 명분이 소멸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박씨 종친회에서는 추모제를 지낼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후손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종친회가 주도하는 추모 의례는 문중이라는 혈연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개인에 따라 처음에는 이 의례 참석을 회피하다가도 혈연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의례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박씨 종친회의 추모 의례는 가문 유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삼정문 사당은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당에 모셔진 박씨와 충비 고소락의 충절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열녀의 테두리 안에서 두 여성을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당대 시대상을 살펴보고, 여성의 위상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삼정문의 주인공인 박씨와 충비 고소락의 효행과 절행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제사 의례의 의미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V. 흥윤애 추모 의례의 역사·문화적 의미

1. 흥윤애의 추모 동기

흥윤애(洪允愛: ~1781)는 앞에서 살펴본 ‘김만덕, 고씨, 박씨’의 추모 의례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 제주 사회에서 흥윤애라는 이름이 거론되

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이다. 처음부터 홍윤애에 초점이 있었다기 보다는 조정철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윤애의 존재가 드러났다. 제주도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주여성사와 제주여성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홍윤애의 행적이 빛을 보게 되었다.

홍윤애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처로 불리지 않았고, 그를 추모해 줄 가족과 후손이 없다. 그런 점에서 홍윤애는 사회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거론될 만한 대상으로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홍윤애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를 위한 추모 의례가 봉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홍윤애에 대한 조정철의 사랑과 그것을 의미 있게 표출한 동기를 살펴보겠다.

홍윤애는 절개를 지키고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주인공으로 현대에 와서 추모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홍윤애의 배필인 조정철³¹⁾이 작성한 비문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홍윤애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³²⁾

[조정철(趙貞喆)이 당쟁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왔을 때 그 謫所에 洪允愛가 출입했다. 당시 반대파(少論) 金蓄 목사가 제주도로 부임하였고, 조정철의 비행을 찾아내려고 일부러 홍윤애를 문초하다가 杖殺되었다. 조정철은 유배에서 풀려 돌아갔다가 순조 11년(1811)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자 홍윤애의 墓文을 지어주었다.

31) 조정철(1751~1831)은 1777년(정조 1) 7월에 발생한 정조시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로 유배왔다. 조정철은 1777년부터 1803년 2월까지 27년 동안 제주읍, 정의현(현재 성산읍 성읍리), 추자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靜軒瀛海處坎錄』(조정철 저,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6)에 수록되어 있다.

32) 홍윤애와 조정철의 이야기는 『정헌영해처감록』(조정철 처,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6), 『역주 증보탐라지』(홍순만 외 역, 제주문화원, 2005), 『제주충효열지』(제주도, 1984) 등에 실려 있다. 조정철은 1811년(60세)에 제주도로 부임하여 홍윤애를 위한 묘비를 세웠다. 묘비의 글자는 56자이이고, 조정철은 56세에 해배되었다.

<말하기를 洪義女는 處勳의 딸이다. 정조 정유(丁酉: 1777년)에 내가 죄인으로서 탐라에 안치되었을 때 義女가 나의 謫所에 출입하였다. 신축(辛丑: 178년)에 목사가 義女를 미끼로 나를 죄 지은 것으로 꾸미고자 의녀를 문초하였었다. 血肉이 낭자하여 죽게 되었으나 의녀가 말하기를 공(趙貞喆)의 생이 한 죽음(死)에 있다 하며 不服하여 형틀에 매달려 죽은(殉) 것이 그 해 윤 5월 15일이다. 그 후 31년 만에 방어사로 제주에 와서 묘역을 만들고 시를 지었다.>

- 『역주 증보탐라지』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홍윤애는 연인인 조정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사망하였다. 조정철은 홍윤애의 사후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을 비문으로 기록하여 홍윤애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제주 사회에서 홍윤애의 존재가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초이며, 2000년대³³⁾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그의 묘지를 방문하여 기억하고, 추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역사학자와 예술인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홍윤애가 종친회의 추모 대상자로 수용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조원환³⁴⁾은 제주도에서 홍윤애묘지를 관리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주 조씨 족보에 기록하여 조정철의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홍윤애가 사후라도 조씨

33) 김순이(시인, 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는 홍윤애 관련 기록을 샅샅이 확인하여 여러 편의 글을 썼으며, 홍윤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주유배인과 여인들』(김순이·표성준, 여름언덕, 2012)에 집약되어 있다. 또한 김순이가 중심이 되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의녀 홍윤애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34) 조원환(1937~2015)은 양주 조씨이다. 제주도에서 조정철과 홍윤애 관련 문의가 있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홍윤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1991년 제주출신故장재성 교수를 통해 조정철 목사 관련 자료를 접하게 된 이후 제주도와 조정철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당시故홍순만(언론인, 제주문화원 원장을 지냈음)과 교류하면서 홍윤애묘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후 조원환은 홍윤애를 조씨 종친회의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양주 조씨 종친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필자는 2011년 조원환 회장(양주 조씨 대종회 회장)을 만나서 홍윤애가 양주 조씨 종친회의 추모 의례 대상자로 되기까지 과정을 들었다.

가문의 일원으로 귀속됨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남성중심사회의 전형 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계혈연 공동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원한은 홍윤애를 양주 조씨 족보에 등재함은 물론 사당³⁵⁾에 위패 를 안치하여 후손들의 추모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조씨 종친회 에서 음력 9월 20일 사당제를 봉행할 때 홍윤애를 선조 반열에 포함하 여 추모하고 있다. 이후 홍윤애는 사당제를 통해 조씨 종친들의 추모 의례 대상자가 되었다.

2. 홍윤애 추모 의례의 의미

홍윤애는 평범한 제주 여성이지만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이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홍윤애의 행적을 통해 여성으로서 무고하게 고문을 받고 자결한 사실에 분노하고 애절 한 사랑을 의미 있게 기억하려는 추모 의례가 봉행되고 있다.

홍윤애무덤은 제주시 삼도1동에 있었는데 1940년대 제주공립농업학교 부지로 흡수되면서 현재 위치인 우수암리(제주시 애월읍 소재)로 이묘되 었다.³⁶⁾ 또한 2000년대 들어와서 홍윤애의 행적이 제주 사회에 알려지 자 그의 비극적인 삶을 애도하고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확인하는 데 의 미를 부여하면서 홍윤애묘지는 여성유적 순례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윤애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홍윤애무덤이 있던(제주시 삼도1동 소재) 일대의 도로명을 ‘홍랑길’³⁷⁾로 정하였다.

35)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에 있는 ‘함녕재(咸寧齋)’라는 사당에는 조정철의 큰 부인을 모셨는데 1994년에 이 사당을 확장한 후 1997년 홍윤애의 위패를 안치 했다.

36) 박씨 문중에서 우수암리(제주시 애월읍)로 이묘했으며, 이후부터 홍윤애의 친 정조카(제주시 애월읍 광지리 밀양박씨) 후손들이 벌초하면서 무덤을 관리해 왔다.

37) ‘홍랑길’은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제주도 삼도2동 소재) 동남쪽에 해당된다.

조정철 후손들의 추모 의례와 별도로 제주도에서는 민간인 중심으로 2013년부터 매년 「홍윤애 추모제 및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다.³⁸⁾ 이 행사는 단순히 추모 의례라기보다는 ‘시 낭송, 음악, 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홍윤애를 추모하는 방법으로 예술축제 개최는 또 하나의 추모 의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계혈족 중심의 종친회와 관계없이 제주도에서는 홍윤애와 조정철의 애절한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묘비와 묘지를 추모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는 제사라는 추모 의례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추모 축제는 종친회는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의해야 지속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김만덕, 고씨, 박씨 등 3명의 여성들은 유교식 제사 의례의 절차에 따라 추모제가 거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홍윤애는 일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모되고 있다. 즉 홍윤애를 추모 대상으로 삼기까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는 종친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제주 사람들의 추모 의지가 더해져서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조정철의 종친회에서는 홍윤애를 위해 단독으로 제사 의례를 봉행하지는 않고, 사당제를 지낼 때 선조 반열에 올려서 예를 갖추고 있다. 한편 홍윤애의 추모 의례는 예술제로 봉행되고 있는데, 이는 양주 조씨 종친회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 홍윤애는 직계손이 없기 때문에 집안의 제사 의례로 봉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추모 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홍윤애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자 하는 제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뿐이다. 양주 조씨 종친회원들은 추모 예술제에 자유롭

38) 이 추모제는 제주문인협회에서(김순이 회장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홍윤애를 사모하는 모임>이 주관하여 「제5회 의녀 홍윤애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추모제 일정은 홍윤애 사망일(윤 5월 15일)에 준하고 있다.

게 참석할 수 있다.

홍윤애의 추모 의례는 당사자의 행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역사·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종친회와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업적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집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방법으로 추모 의례가 선택될 수 있음을 보았다. 결국 의례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 의례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추모 대상자의 행적을 기억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질 수 있다.

Ⅵ. 결 론

1. 여성 추모 의례 방식의 변화 의미

제사 의례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제사에는 국가 제사와 조상 제사가 있는데 김만덕의 추모 의례는 제주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제사 의례에 해당된다. 고씨의 추모 의례는 특정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 제사이고, 박씨 추모제는 특정 종친회가 의례 주최자이므로 문중 제사에 속한다. 이 외에 홍윤애의 추모 의례는 지역 예술인들이 의례 주최자이므로 특정집단의 공동체 의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여성의 추모 의례는 유교식 제사 절차를 통해 가문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지역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4명의 여성들은 유교식 제사 의례의 형식을 빌려 추모되고 있다. 제사 의례 자체는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선조들의 행적을 기억하고 공유함으로써 혈연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부여하는 힘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추모 의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 여성의 행적을 귀감으로 삼고,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김만덕, 고씨, 박씨, 홍윤애’ 등 4명의 여성들이 가족, 가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행적을 높게 평가하여 추모되고 있어서 여성들의 특성을 부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4명의 여성들을 위한 유교식 제사 의례는 남성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추모제의 성격만 띠고 있다. 지역의 여성들이 모든 의례 절차를 주도하고 그들의 업적을 여성의 시각에서 기억하고, 재해석하는 등 추모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김만덕제를 예로 들면 남성이 의례 주관자가 되어 의례 전반을 총괄한다. 김만덕이 여성인 관계로 의례 집행자들은 여성으로 구성된다(3헌관, 집사 등). 추모 의례가 제사 의례로 봉행되기 때문에 제주 사회 구성원들은 남성이 의례 주관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례 이행 절차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편 홍윤애 추모제는 유교식 제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최측의 목적에 따라 의례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씨(양주) 종친회에서는 사당제를 통해 제사 의례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윤애묘지에서 지내는 추모제는 예술인들이 주최자가 되므로 예술제의 형식을 띠 수 있다. 따라서 홍윤애 추모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다른 여성들의 추모 의례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김만덕 추모제와 고씨의 추모제는 추모제와 축제를 병행하여 추모 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추모제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지역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정문 주인공의 추모제는 종친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 삼정문 사당제는 추석날이 제일이므로 이 의례를 조금 확장하여 종친들의 문화축제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추모 의례 대상자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모 의례 대상자	추모 시기/ 방법	추모 의례 주최	주요 특징
김만덕	• 10월 22일이 포함된 넷째 주 일주일(만덕주간)	제주도	• 1980년 김만덕상 제정과 만덕제 개최를 통해 김만덕 정신의 계승에 목적이 있다.

	• 만덕제, 만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은 지방정부의 추모 의례 대상자로 자리매김되었고, 그의 행적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김만덕기념관과 묘지가 추모공간이다.
고씨	• (음) 3월 15일 • 절부암추모제 (마을제)	마을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씨는 마을 사람들의 추모 의례 대상자이다. • 마을 사람들은 추모 의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 절부암 제단과 마을회관이 추모공간이다.
박씨	• (음) 8월 15일 • 사당제	박씨 종친회 (밀양 박씨 규정공파 공간공7세 후손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씨 종친회는 사당에서 매년 추모제를 지내면서 종친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 삼정문 사당(정려각)이 추모공간이다.
홍윤애	• (음) 5월 15일 • 사당제, 예술축제	양주 조씨 종친회, 지역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 조씨 종친회와 제주 사람들의 추모 의지가 반영되어 의례가 지속되고 있다. • 홍윤애의 추모 공간은 묘지와 사당(함녕재)이다.

2. 여성 추모 의례 지속의 의미

유교식 추모 의례는 조상과 후손의 지속적인 소통 방법이고, 혈연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영속성을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후손들의 가치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명의 제주 여성들은 종친회와 지역공동체의 추모 대상자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추모되고 있다. 이 여성들이 조선시대 인물이면서도 현대에 와서 추모 대상이 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의 행적을 기리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들의 추모 의례는 유교

식 제사 의례를 통해 가문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지역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제주도의 추모 의례 대상자인 김만덕, 마을 사람들의 추모 의례 대상자인 고씨, 종친회의 추모 의례 대상자인 박씨와 홍윤애 등 4명의 여성들은 혈연공동체부터 지역공동체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추모 의례가 행해짐으로써 그들의 행적과 위상이 주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추모 의례는 주인공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지금과 같이 주인공들의 행적을 무조건 칭송한다면 이는 여성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삶을 정형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여성들은 역경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4명의 여성들은 그들이 처한 시대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행동임을 이해하고, 후손들이 추모하고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결국 유교식 제사 의례를 통해 추모되고 있는 4명의 여성들이 부각된 것은 보통의 여성들보다 뛰어난 행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성들이 당연하게 취하는 행동에 비해 여성들의 행동을 귀감으로 여기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인식이 보태어졌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여성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반영되어 있는 행적을 미화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저서

『속수삼강록』

『정조실록』

고창석 역, 『효열록』, 제주교육박물관, 1996.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Ⅱ』, 2008.

김봉옥 편저, 『박씨 삼정문록』, 경신인쇄사, 1983.

김순이·표성준, 『제주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김익수 편저, 홍기표 외 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 여성-제주열녀들의 삶』, 도서출판 각, 2007.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5, 200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1)』, 1985.

제주도, 『제주충효열지』, 1984.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조정철 저, 김익수 역, 『靜軒瀛海處坎錄』, 제주문화원, 2006.

홍순만 외 역,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2. 논문

김광억, 「문화실천의 공간으로서의 죽음의 의례 : 영남인의 상례와 제사」, 『민족문화논총』 22, 1999.

김미영,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a.

김미영,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조상제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4집, 2009b.

문순덕, 「제주여성, 책 속에서 밖으로」, 『제주문화』 19, 제주문화원, 2013.
이 욱, 「조상제사의 의미와 기억의 의례화」, 『국학연구』 19, 2011.

ABSTRAC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of Jeju Women
Commemorated through The memorial rituals

– Focusing on Kim Manduk, Mrs. Koh, Mrs. Park,
and Hong Yoonae –

Moon, Soon-deok*

The memorial ritual is the essence of the Confucian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The memorial ritual can be divided into national rituals and ancestral rituals and the memorial rituals at the local, villages, and family units tend to be held for male ancestors. On the contrary to this, in Jeju Island, there are women who are set as the main ancestors for memorial rituals in the local, villages, and the families.

This study looked at the achievements of the four female ancestors: Kim Manduk, Mr. and Mrs. Koh, Mrs. Park, and Hong Yoonae and the reasons why they have been commemorated through memorial rituals. Memorial ritual of Kim Manduk is held at the level of Jeju province, so it is considered as a ceremonial ritual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 The memorial ritual of Mr. and Mrs. Koh is a village ritual performed in a specific village while the memorial ritual of Mrs. Park is a family ritual presided over by a certain clan community gathering. The memorial ritual Hong Yoonae is a ceremony of a certain community group because it is organized by local artists.

The four female ancestors of memorial rituals who had lived in the

* Senior Research Fellow, Jeju Research Institute

Joseon Dynasty became the objects of memory in modern times in the community members' recognition of their achievements as objects to be honored and imitated. As a result, the memorial ritual has contributed to raise the status of the community by expanding itself from the private area of the family to the public domain.

The memorial ritual itself has the power to strengthen the consciousness of the blood community by remembering and sharing the achievements of the ancestors with their descenda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onsciousness of collective desire to perform the memorial ritual of women and to take the woman 's achievements as a model.

Key-words: memorial ritual, Kim Manduk, Mrs. Koh, Mrs. Park, and Hong Yoonae, clan community gathering, Jeolbua(Rock of the Faithful Wife)

논문투고일: 2019. 12. 27.

심사완료일: 2020. 02. 03.

게재확정일: 2020. 02. 06.